

[故 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앞에서 엄수됐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정·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영결식은 시중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으며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의식도 치러졌다.

/연합뉴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발인·영결식·노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치러진 29일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염원하는 ‘노란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다. 국민들은 노 전대통령의 유해가 고향 봉하 마을에서 영결식·노제가 열린 서울, 화장식이 진행될 수원을 거쳐 다시 봉하로 돌아가기까지 온종일 일손을 놓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특히 서울광장에서 거행된 노제(路祭)에서는 최대 18만여명(경찰 추산, 노제 주최 측은 40만~50만명 주장)의 시민들이 노 전대통령을 애도했다.

새벽 5시 봉하마을 발인제

◇영결식 1시간 25분간 엄수 =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전연씨를 포함한 유족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김대중·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 외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응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외국 조문단과 이해찬·고건 전 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참여정부 시절 인사와 측근 등이 고인을 애도했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5시 경남 김해시 봉하 마을에서 발인제를 마치고 출발한 운구 행렬이 약 5시간의 여정 끝에 오전 11시경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 마련된 영결식장에 들어서던 순간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했다.

이후 송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인 약력 보고,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가 이어졌다.

봉하사 주지인 명진스님의 영가 축원과 반야심경 봉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목사의 안식기도, 송기인 신부의 고별기도, 원불교 이선중 서울교구장의 천도의식 등 종교의식이 차례로 진행됐으며, 제단 양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고인의 행적을 가리는 생전의 영상을 내보냈다. 조사와 생전 영상이 방영되는 동안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오열하기도 했다.

‘새같이 날으라’, ‘미타의 품에 안겨’ 등 조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이명박 대통령 내외,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등 고위인사 및 외교사절, 스티븐스 미대사 등 외교사절이 차례로 노 전대통령의 영정에 하얀색 국화꽃을 바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영결식은 고인이 생전에 즐겨 듣거나 불렀던 노래 ‘삼복수’와 ‘아리랑’, ‘아침이슬’을 국립합창단 합창과 강은일의 해금 연주로 들려준 데 이어 육·해·공군 조종대원들이 조종 21발을 발사하는 의식을 끝으로 당초 예정보다 15분 가량 긴 1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정·관계 주요인사, 외교사절 명복 기원 노래 ‘사랑으로’에 유족·시민들 끝내 눈물 시민들 “이대로 못 보낸다” 화장 3시간 지연

양희은·윤도현 등 추모공연

◇시민 애도 속 노제=영결식이 끝난 뒤 가로 1.1m, 세로 1.4m 크기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은 인도뿐 아니라 도로에까지 가득찬 시민들의 애도 속에 세종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 노제를 치렀다. 운구 행렬이 서울광장에 도착할 무렵인 이날 오후 1시20분께 광장은 물론 세종로 사

거리부터 송례문 앞까지 도로 전체에는 이미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려는 10만여명의 시민들로 가득찬 상태였다.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가수 양희은과 안치환, 윤도현의 추모공연에 이어 거행된 노제는 고인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 의식을 시작으로 국립합창단의 ‘혼맛이 소리’, 국립무용단의 ‘진혼무’, 안도현·김진경 시인의 조시 낭독, 안숙선 명창의 조창, 묵념, 장시사의 유서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노제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노제가 끝나고서 운구행렬은 시민들이 합창한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 속에 서울역까지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를 뚫고 발길을 천천히 옮겼으며, 시민들은 2천여개의 만장(輓章)을 들고 행렬을 뒤따르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유해 정무원 범당 임시 안치

◇화장 3시간 지연=영결식과 노제가 지연되면서 화장식은 당초 예정보다 3시간 이상 늦은 29일 오후 6시7분께 시작했다. 그러나 화장지인 경기도 수원 연화장을 찾는 인파는 예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화장이 시작될 때는 8천여명(경찰 추산)으로 늘어났다.

추모객들은 영결식이 늦어지는데도 대형 스크린 차량을 통해 추모영상을 보면서 차

분히 운구행렬을 기다렸다.

7개월 된 아들과 함께 연화장을 찾았다는 임혜진(32·여·수원시 원천동) 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용산에서 (운구 차량을) 막아선 사람들 마음도 이해된다”며 “힘들지도 불편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수원시 정자동에서 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온 70대 할머니 김은애 씨는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드리려고 왔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연화장 안쪽에 흡수대를 설치하고 생수 20ℓ 들이 30통, 커피 1만4천명분, 녹차 2천400명분을 준비했으나 오후 5시에 완전히 떨어져 비슷한 물량을 추가 주문했으며, 공단 직원과 수원시 공무원, 부녀회원 등 300여 명이 장례를 도왔다.

화장된 노 대통령의 유해는 이날 밤 봉하 마을로 옮겨져 봉하산 정무원 범당에 임시로 안치됐다. 향후 사저 인근에 조성되는 장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을 침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9일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위로 한 뒤 울고 있다.

인터넷도 노란물결 넘실

盧 전대통령 캐리커처 새겨진 노란풍선 급속 퍼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29일 봉하마을의 하늘을 노란 종이비행기가 수놓고, 광화문과 시청 인근이 노란 풍선으로 뒤덮인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노란 물결이 넘실거렸다.

‘스스로 만든 운명을 짊어지고 떠난 대통령에게’라는 문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캐리커처가 새겨진 노란 풍선은 이날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 영결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포털 게시판 등에는 영결식에 참석했던 누리꾼들이 노 전 대통령이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본 느낌과 현장 상황 등을 앞다퉈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누리꾼들을 위해 영결식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곱TV는 노 전대통령 발인부터 영결식 현장까지 YTN24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영결식 현장을 생중계해 수많은 누리꾼들이 PC 앞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었다. 다음의 경우 영결식 생중계에서 최대 동시접속자수가 약 15만 명에 달했다. 이는 다음의 생중계 역사상 최대 수치다.

나우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도 영결식 현장을 생중계했다. 네이버와 싸이월드는 초기 화면 절반을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노 전대통령의 생전 사진을 걸어놓고, 사이트 배경음악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부른 삼복수로 깔아놓았다.

/연합뉴스

MB 당황

현화 순간 “사죄하라” 야유에 굳은 표정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시종 침묵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현화하는 순간 야유가 터져나오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 내외가 현화를 하려던 순간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이에 경호원들이 즉시 백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제지했으나 영결식장 여기저기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다.

당황한 사회자 송지현 아나운서가 “고인은 마음에 많은 말을 담고 가셨다”며 “마음으로 고인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자제를 당부했으나 소란은 이 대통령 내외가 현화

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야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현화 때도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현화할 때 역시 “물러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거의 숙이지 않고 묵념한 뒤 제자리로 돌아갔다.

같은 시간 서울광장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영결식을 보던 시민들도 야유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이 현화하는 순간, 사대질을 하며 “물러가라”라고 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오열

권여사 손잡고 위로하다 울음 터뜨려

노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끝내 오열을 참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앞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현화와 분향을 마친 뒤 유족에 다가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권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여 김 전 대통령에게 인사했으며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내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일어나 함께 눈물을 흘렸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영결식에 참석한 김 전 대통령은 영결식 내내 눈

을 지그시 감은 채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전날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노 전대통령의 분향소를 방문해 “정부가 국민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분향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내가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는 것조차 반대해 무산됐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 노 전대통령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각별히 신임했으며 서거 소식이 알려진 지난 23일 “내 몸의 반이 무너진 심정”이라고 애

통한 심정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